

산업부, 타지키스탄과 한-중앙아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제협력 성과 창출 논의

- 산업부 차관-타지키스탄 산업신기술부 1차관 면담 -
- 9월 정상회의의 경제 성과 및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 논의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, 이하 산업부) 문신학 차관은 8월 11일(화) 서울에서 이소존 쿠르본조다(Isozon Kurbonzoda) 타지키스탄 산업신기술부 1차관과 면담을 갖고, 9월 16일(수) 개최 예정인 ‘제1차 한-중앙아 정상회의’ 관련 산업·경제 성과사업과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

양측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* 산업장관 간 정례적인 협력채널인 ‘C5+韓 산업장관회의’를 신설하고, 한-타지키스탄 양국 간 산업·신기술 분야의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. 또한, 정상회의 기간 중 개최되는 ‘한-중앙아 비즈니스 서밋’을 통해 양국 주요 기업인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.

* 타지키스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키르기스스탄

아울러,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. 문신학 차관은 한-중앙아 정상회의에 앞서 금·은·안티모니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타지키스탄과 최초로 ‘한-타지키스탄 광물포럼’을 8월 12일(수)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 이번 포럼이 타지키스탄의 자원 잠재력과 한국의 광물 탐사·개발 기술 및 수요를 연계하여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 동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·전문기관·기업 등이 참여하여 핵심광물 정책과 공동탐사 기회, 투자·금융 및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문 차관은 “타지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는 풍부한 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중요한 협력 파트너”라며, “오늘 면담에서 논의한 협력과제들을 구체화하여 9월 한-중앙아 정상회의에서 산업·공급망·핵심광물 등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근용 (044-203-5680)
		담당자	서기관	문성용 (044-203-5684)
	자원산업정책관 광물자원팀	책임자	사무관	김상현 (044-203-5674)
			팀 장	장민재 (044-203-5259)
		담당자	사무관	윤가영 (044-203-5258)